

# 광주 광산구에 ‘호텔형 장례식장’ 문 열었다

### 베스트장례문화원 오늘부터 운영...장례문화 새 기준 제시 ‘사람 중심’ 품격·편의·위로까지 갖춘 차별화 서비스 제공

광주 장례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호텔형 장례식장’이 문을 열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스트장례문화원이 최근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509 일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베스트장례문화원은 기존 장례식장의 엄숙함을 넘어,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케 하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쾌적한 동선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밝고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덜고, 방문객들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하려는 설

계가 곳곳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건물은 과거 예식장과 명품관 등으로 운영됐으나 잇따라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공간이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형 장례문화원’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침체됐던 공간이 지역의 필수 생활 인프라로 다시 살아났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설 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했다.

내부에는 고급 라운지형 빈소와 넓은 접객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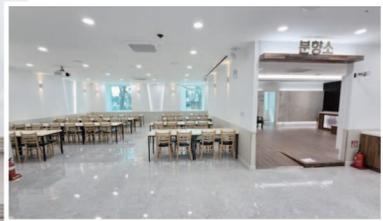
간, 쾌적한 휴게시설이 마련됐으며, 장례 절차 전반을 보다 품격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카페형 휴식공간인 보석프레스 카페가 함께 운영되며, 유가족과 방문객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장례문화의 패러다임이 ‘의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베스트장례문화원이 지역 장례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스트장례문화원 관계자는 “단순한 장례식장이 아닌,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도입해 지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금호타이어, ‘크루젠 GT Pro’ 광고 캠페인 시작

###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 등 주행 성능 강조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SUV(스포츠투윌리티차량) 전용 타이어 신제품 ‘크루젠 GT Pro’ 출시와 함께 신규 광고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금호타이어는 ‘도로 위에서 증명되는 퍼포먼스’를 콘셉트로 한 광고를 준비해왔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시와 항구,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촬영 감독의 시선을 통해 제품의 주행 성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화 속 히어로카를 압도하는 드라이빙 연출로 가속, 코너링, 제동 등 크루젠 GT Pro의 극적인 퍼포먼스를 직관적으로 연출했다.

또 비나 눈 등 기상 변화와 울퉁불퉁하고 장애물이 있는 복잡한 도심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정숙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소비자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만의 ‘도심형 프리미엄 SUV 타이어’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번 광고에 등장하는 ‘크루젠 GT Pro’는 SUV용 타이어 브랜드 ‘크루젠’의 야심작이다. 국내 SUV 제품 중 유일하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회전저항) 2등급 획득했으며, 전 규격 UTQG 트레드웨어 800을 기록해 압도적인 효율성과 내구성을 입증했다.

특히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대응 가능한 ‘EV Compatible’ 제품으로,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

해당 광고는 국내 지상파 TV 광고를 포함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까지 폭넓게 노출될 예정이며 글로벌에서도 당사 유튜브 채널인 ‘에스타 TV’를 비롯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 마케팅부서 상무는 “크루젠 GT Pro 광고는 금호타이어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상의 다양한 변수와 한계에 맞닥뜨리지만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제품에 대한 검증된 품질을 보여주고자 이번 광고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기아 ‘EV9 GT’ 호평...북미·유럽서 수상 릴레이

### ‘최고의 차’ 잇따라 선정...성능·고객가치·실용성 등 인정

기아는 최근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윌리티차(SUV) EV9이 독일 유력 매체의 비교 평가 승리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주요 자동차 어워즈 수상과 안전성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고성능 모델인 EV9 GT는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총점 583점을 획득,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 EX90(565점)을 18점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주요 어워즈에서의 수상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EV9은 최근 캐나다 토포에서 열린 ‘2026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 ‘2026 캐나다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EV9에 대해 “세련된 스타일과 강력한 성능,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최고의 3열 전기차”라고 극찬했다.

또 영국 자동차 매체 ‘왓 카’가 주관하는 2026 왓 카 어워즈에서는 ‘최고의 7인승 전기 SUV’로 선정되며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독보적이다. EV9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의 2026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중형 전기 SUV 부문 최고 모델로 선정된 데 이어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의 2026 최고의 차 어워즈 및 2026 전기차 톱 픽까지 휩쓸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EV9은 2025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SP+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한 것은 물론, 유럽의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